



Hello there! I'm Sister Claudia Rushlow. I was born in Pasadena, Texas (not California) near Houston. I am the oldest of five children born to Cliff and Inda Rushlow. My siblings are Roxie, Paul, Cathie, and Anita. Both of my parents and the two youngest siblings (sisters) are deceased. Roxie lives in Mesa, Arizona and has 31 grand and great grandchildren! Paul lives in Washington State, near the Canadian Border with his children and grandchildren.



My father, a blue-collar worker, was involved with the installation of the El Paso Gasoline to the West, which is why we settled in Tucson, Arizona during my growing up years. I attended St. John the Evangelist School and then Immaculate Heart Academy for high school. After graduation, I began working part time at an insurance agency before entering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n 1958. I was trained at Seton Hill College and two weeks after entering I was given my own classroom.



Nine Sisters of Charity I entered with and I just celebrated our 65th Anniversary in the summer of 2023. It was good to celebrate old times together. Most of my 20 years of teaching were spent in Pennsylvania and Arizona.

Another 20 years I served as a Director of Religious



Education in Arizona, plus 3 years in Texas. After that I received training for chaplaincy and began working in hospitals.



Some of my travels included going with my mother to visit Mexico City, where Our Lady of Guadalupe appeared to St. Juan Diego. Another high point of travel was getting to attend Mother Seton's canonization. My favorite picture of Mother Seton is the one of her with her oldest son. Finally, I was able to visit Quebec, Canada – my grandparents came from there.



In 1990-1991, I spent a volunteer year in Korea. Eventually, I became the "welcomer" at Saints Peter and Paul Convent in Arizona for over 30 years, seeing to the household needs of some 17 Sisters of Charity of the Korean Province who attended English classes to become more proficient with the language before formal studies.

Some of my volunteer time was spent working with ALITAS, an immigration organization helping mostly Latin Americans coming through Mexico with the hope of receiving asylum in the USA. I am proud of 13 years I ministered as a Eucharistic Minister at the Arizona State Prison.

I end with a prayer: "Lord, give me the many graces needed to minister to those most in need whether near or far."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 러쉬로우 Claudia Rushlow 수녀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텍사스주 휴스턴 근교에 있는 패서디나 Pasadena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클리프 러쉬로우 Cliff Rushlow와 어머니 인다 Inda 슬하의 다섯 자녀 중 장녀입니다. 록시 Roxie, 폴 Paul, 캐시 Cathie, 아니타 Anita, 이렇게 동생 넷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두 여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록시는 애리조나주 메사 Mesa에 살고 있고 손주와 증손주가 31명이나 된답니다. 폴은 워싱턴주 캐나다 국경 근처에서 손주와 증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블루칼라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미국 서부에 엘파소 주유소 설치와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애리조나주 투산에 살게 되었고 저는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지요. 저는 성 요한 복음사가 St. John the Evangelist 학교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아카데미 Immaculate Heart Academy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는 보험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에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하여 씨튼힐 대학에서 양성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입회한 지 2주 만에 학교에서 담임을 맡았습니다.



올해 2023년 여름, 함께 입회한 9명의 동기 수녀님들과 저는 수도생활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함께 기념하며 축하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20년 교직 생활은 대부분 펜실베이니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 보냈고, 신앙교육 담당자로 20년은 애리조나주에서, 3년은 텍사스주에서 봉사했습니다. 원목 교육을 받은 후에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여행 가운데 어머니와 함께 과달루페 성모님이 성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하신 멕시코 시티를 방문한 여행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마더 씨튼의 시성식에 참석한 것이었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더 씨튼 초상화는 큰아들과 함께 있는 그림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조부모님의 고향인 캐나다 퀘벡도 방문할 수 있었지요.



1990년-1991년에는 한국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애리조나주 성 베드로와 바오로 수녀원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미국에서 정식 공부를 시작하기 전 영어 공부를 위해 어학원을 다니는 한국 관구 수녀님 17명을 맞이하고 그 수녀님들 생활의 필요를 돌보는 "웰커머welcomer"가 되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 경험 중에서는 미국 망명의 희망을 안고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라틴 아메리카인들을 도와주는 이민 단체인 알리타스 ALITAS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 교도소에서 성체 봉사자로 13년 동안 봉사했는데 이 시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기도로 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든 멀리 있든 어디서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많은 은총을 저에게 내려 주소서."